

SKT 'T우주' 가입자 15만 돌파

SK텔레콤은 8월 31일 론칭한 구독 서비스 '모두의 구독 유니버스, T우주'가 일주일 만에 가입자 15만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T월드, 11번가 같은 셀프 가입 채널 등 다양한 가입처에서 전 연령대에 걸쳐 고른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11번가의 해외직구 카테고리 거래액은 아마존 글로벌스토어의 혜택이 제공되는 '우주패스'의 인기에 힘입어 론칭 후 일주일 동안 전월 같은 기간보다 3.5배 이상 커졌다.



판 커진 한샘 인수전

LX하우시스 깜짝 가세...한샘, 누구 품에 안길까

LX, 3000억 출자해 전략적투자자로 참여
“토털 인테리어 성장 동력 육성 위해 추진”
롯데도 한샘 인수 위한 공동출자 검토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본준 LX그룹 회장

국내 1위 가구·인테리어 업체 한샘 인수전의 판이 커지고 있다. 롯데그룹 내 롯데쇼핑의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LX그룹의 종합 인테리어 업체 LX하우시스도 깜짝 가세하면서다.

한샘은 7월 최대주주인 조창걸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 7명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30.21%) 및 경영권을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IMMPE)에 양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샘이 제시한 매각 가격은 1조5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IMMPE는 절반을 인수금용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전략적투자자(SI)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롯데쇼핑과 LX하우시스는 전략적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LX그룹, 미래 먹거리 위한 사업 확장

그간 인수 후보로 거론되지 않던 LX하우시스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끈다. LX하우시스는 6일 이사회를 열고 IMMPE가 한샘 인수를 위해 설립할 예정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3000억 원을 출자해 전략

적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고부가 전자재 사업 역량과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털 인테리어 사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회사의 중장기 전략 방향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국내 종합 인테리어 시장에서 한샘의 다양한 가구와 소품부터 LX하우시스의 프리미엄 전자재까지 상호 협력 시너지로 전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참여는 5월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해 새 출발을 알린 구본준 LX그룹 회장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구 회장은 7월 27일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 “LX만의 중장기 비전 수립과 일하는 방식이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며 “수익성 위주의 성장 기반 구축과 중장기 성장 전략 추진에 필요한 조직 역량 확보, 인재 육성, 조직문화 구축에 집중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 내 사업과 시너지 노린다

롯데그룹도 롯데쇼핑을 통해 한샘 인수를 위한 공동출자를 검토 중이다. 롯데쇼핑은 1일 “한샘 경영권 인수와 관련해 IMMPE에서 마련 중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한 바 있다.

롯데그룹이 한샘 인수를 검토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리빙 시장이 급성장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쟁사인 현대백화점그룹과 신세계그룹이 각각 리바트와 까사미아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롯데그룹은 가구 브랜드가 없는 상황도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월 1일 하반기 VC M(구 사장단 회의)에서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실패조차 없는 것”이라며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미래 관점의 적극적인 투자와 과감한 혁신을 주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의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LX하우시스가 깜짝 가세하면서 한샘 인수전의 판이 커지고 있다.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샘 사옥.

한샘 인수에 성공한다면 사업 다각화는 물론 롯데쇼핑의 온·오프라인 유통망, 롯데하이마트, 롯데건설 등 계열사 내 여러 사업과 시너지를 내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굵직한 대기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인수전의 결말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 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IMMPE는 참여 의사를 밝힌 대기업들의 투자 조건과 시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파트너를 낙점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참여 대기업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든 업계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파트너 최종 선정에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에 참여한 SPC그룹과 한국해비타트 임직원들.

사진제공 | SPC

SPC그룹 추석 맞이 사회공헌활동 실시

주거환경 취약계층 아동 돕기...추석명절 제품 후원

SPC그룹이 추석을 맞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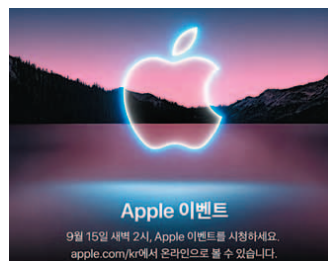
먼저 온라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달콤한 동행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후원금 2000만 원으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의 주거환경 취약계층 아동 돕기에 나선다. 주거환경개선 활동 현장에는 SPC그룹과 한국해비타트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한다.

또 SPC그룹 계열사들은 사업장 인근 복지기관에 추석 명절 제품을 후원한다. SPC행복한재단은 서울 서초구 양재노인종합복지관에 송편과 삼립 보름달빵 등으로 구성된 추석선물세트 200개를 지원한다. 파리크라상은 '2021년 성남시 추석맞이 사랑의 식품나눔기' 행사에 10kg 쌀 123포를 후원한다.

비알코리아는 충북 음성군 노인복지관에 명절선물세트 약 200개를 전달한다. SPC삼립은 경기 시흥, 충남 서천, 광주광역시, 경남 하동군 소재 지역복지관과 장애인 시설에 삼립 동물복지함 선물세트와 빛은 죽 선물세트를 지원한다.

정정욱 기자

애플 “14일 특별 행사”...‘아이폰13’ 공개 전망



애플이 14일(미국 현지시간) 새 아이폰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8일 글로벌 미디어에 이와 관련한 초대장(사진)을 보냈다. 초대장에는 한국 시간으로

15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쿠파티노 본사 애플파크에서 스페셜 이벤트를 연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애플이 일반적으로 9월 새 아이폰 제품을 발표해왔다는 점에서 업계는 이번 행사에서 ‘아이폰13’을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아이폰13은 ‘A15바이오닉’ 칩을 탑재하고, 용량이 늘어난 배터리와 개선된 카메라 성능 등을 갖출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업계에선 이날 행사에서 새 애플워치나 무선이어폰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한국판 수소위원회 발족...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정의선·최태원·최정우 등 기업총수 대거 참석
회원사 간 수소사업 협력 등 수소 투자 활성화

국내 수소경제를 주도할 15개 회원사로 구성된 민간 수소기업협의회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8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총회에는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한화그룹 김동만 대표이사 사장, GS그룹 허세홍 사장, 현대중공업그룹 정기선 대표이사,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 효성그룹 조현상 부회장, 코오롱그룹 이규호 부사장, 이수그룹 김상범 회장, 일진 허정석 부회장, E1 구동희 대표이사, 고려아연 최윤범 부회장, 삼성물산 등이 참여했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에 각별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개별 단위의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업·정책·금융 부분을 하나로 움직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수소산업 생태계의 완성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수소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리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확산·경쟁력 강화의 핵심 역할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회원사 간 수소사업 협력 추진 ▲수소 관련 투자 촉진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 초청 인베스터 데이 개최 ▲해외 수소 기술 및 파트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앞줄 오른쪽부터) 등 주요 그룹 수장들이 8일 민간 수소기업협의회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창립총회를 마친 뒤 현대차그룹 부스의 수소트럭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너 공동 발굴수소 관련 정책 제안 및 글로벌 수소 아젠다 주도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확산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매년 9월 전 회원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열고 관련 주요 이슈 및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회원사들은 정기모임을 갖고 기술, 정책, 글로벌 협력 등 3개의 분과별 중점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매년 상반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정기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해 국내외 투자자들을 초청하고 수소 관련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는 계획이다.

이미 현대자동차, SK, 포스코, 한화, 효성 등 5개 그룹 주도로 2030년까지 수소 생산, 유통·저장, 활용 등 수소경제 전 분야에 43조4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의 발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는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우선 해외수소 생산·운송 영역으로 진입해 주도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수소 공급원의 다양화, 자립적 수소 공급망 구축을 궁극적인 대응전략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제주드림타워, K쇼핑에서 숙박 패키지 판매



복합리조트 제주드림타워는 K쇼핑을 통해 10일(오후 11시40분)과 12일(오후 9시40분)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객실 패키지를 판매한다.

투숙 기간은 22일부터 12월30일까지다. 성수기(10월1일~3일, 10월8일~10일, 12월24일~26일)의 경우 1박당 10만원의 추가요금이 붙는다. 65㎡ 객실을 기본으로 3곳의 레스토랑(뷔페 그랜드 키친, 카페 8, 녹나무)에서의 조식, 1층 갤러리 라운지에서 음료 2잔 및 조각 케이크 2개를 제공한다. 8층 야외 풀데크 및 6층 실내수영장, 피트니스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박시 38층 포차의 인기메뉴인 해산물 안주 플레이트를 제공한다. 구매고객 5명을 추천해 코너 스위트(130㎡)로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한다. 회당 200만원의 현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